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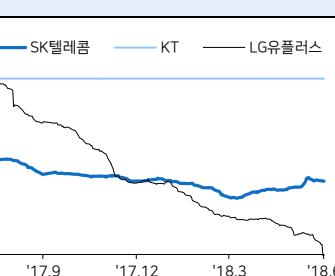
2018.7.2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1.3	-4.6	-4.8	-6.2	9.1	9.1	1.0	1.0	2.1	2.1	
통신업종	-3.2	5.9	1.9	-7.7	7.7	7.7	0.8	0.8	3.9	3.9	
SK텔레콤	-3.7	5.0	-0.2	-12.7	6.4	6.6	0.9	0.8	4.4	4.4	
KT	-1.1	1.5	-0.5	-9.4	10.0	9.5	0.6	0.5	3.9	4.2	
LG유플러스	-3.1	17.6	14.3	0.0	11.1	10.1	1.1	1.0	3.1	3.3	
AT&T	1.3	-1.1	-9.9	-17.4	9.4	9.3	1.4	1.3	6.3	6.4	
Verizon	1.1	5.2	5.2	-4.9	11.0	10.8	3.7	3.1	4.7	4.9	
T-Mobile	-1.7	5.1	-2.1	-5.9	18.5	15.0	2.1	1.9	0.0	0.0	
Sprint	-1.1	4.6	11.5	-7.6	28.0	N/A	0.9	0.8	0.0	0.0	
NTT Docomo	-0.3	1.7	3.9	6.1	14.4	14.4	1.8	1.7	3.5	3.8	
KDDI	-0.2	3.8	11.6	8.1	12.9	11.8	1.9	1.8	3.0	3.3	
Softbank	-5.0	2.7	0.3	-10.6	8.0	15.6	1.7	1.5	0.6	0.6	
China Mobile	1.5	-1.2	-3.1	-12.1	10.4	10.2	1.2	1.1	4.7	4.8	
China Unicom	0.1	-7.9	-1.0	-7.2	28.5	17.9	0.8	0.8	1.5	2.2	
China Telecom	4.9	-1.1	6.1	-1.3	12.3	11.1	0.7	0.7	3.4	3.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1.4% (-0.1%p WoW, +0.4%p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36.0% (-1.1%p WoW, -1.5%p MoM)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전주 대비 하락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6월 마지막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9%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이탈로 상대적으로 외인 비중이 높은 통신주 역시 부정적 주가 흐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 벤안 재발의 논의로 CJ헬로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 국내 기관은 LG유플러스 순매수, 외국인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2Q18 실적으로 이동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와 각종 요금 인하 대책 시행으로 통신 3사 모두 무선 사업 실적은 다소 부진 다만, 번호이동시장(MNP) 축소에 따른 마케팅비용 하향 안정화로 수익성 감소를 일부 상쇄할 전망 2Q18 실적 발표 이전 유료방송 M&A, MSCI지수 재편입 기대감이 있는 LGU+의 양호한 주가 흐름 전망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4	25	26	27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	28	29	30
7/1	2	3	4	5	6	7

3 주간 뉴스

▶ '효력 상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놓고 논란 재현

(Digital Times)

- 추혜선 의원(정의당),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2년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 대표 발의
- 추 의원은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독과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
- KT는 합산규제가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며 반발
- ⇒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등 시장이 경쟁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 ⇒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전세계 유일한 점유율 규제인 만큼 합산규제 연장은 시장 흐름을 역행

▶ 방통위-페이스북 '이용자피해·소급적용·속도지연' 3대 쟁점 '공방'

(전자신문)

- 서울행정법원은 28일 페이스북이 제기한 징계 취소 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
-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망 이용료 협상과정에서 특정 사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트린 바 있음
- 페이스북은 법률 적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해당 건이 법률의 소급적용이라며 반발
- ⇒ 재판부는 8월 16일 양측 기술문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등 두 번째 공판을 이어갈 예정
- ⇒ 징계 취소 시, 인터넷사업자와 이통사 사이의 망사용료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

▶ 화웨이, 韓 이통사에 뜨거운 '러브콜'... "보안 자신있다"

(헤럴드경제)

- 화웨이 조이 탄 사장, MWC 상하이 2018에서 통신 장비의 보안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강조
- 또한,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피력
- 한편,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7일 "이번이 없는 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 ⇒ 현재 이통사 장비 개발 현황 및 주요 기능을 확인 중이며, 본격적인 성능테스트는 다음달 예정
- ⇒ 가능성 측면에서 화웨이가 앞서지만, 국가 보안을 위해 삼성전자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

▶ "KT도 했는데..." SKT '100GB·저가요금제' 놓고 '장고'

(News1)

- SK텔레콤, 저가요금제 출시를 놓고 수익성 감소와 가입자 이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회사이익이 줄더라도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선언
- 현재 해당 요금제에 대해 내부적인 시뮬레이션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
- ⇒ 8월 삼성 플래그십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저가요금제의 부재가 가입자 이탈로 이어질 우려
- ⇒ 한편, 저가요금제는 2G/3G이용자를 LTE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종편·보도PP, 방발기금 징수율 상향

(Digital Times)

- 27일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1%에서 1.5%로 상향
- 지난해 기준 지상파 방송사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KBS 2.87%, MBC 4.4%, SBS 4.3%
- 2011년 출범한 종편은 신생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발기금을 내지 않다가 2015년부터 징수 시작
- ⇒ 방통위는 기재부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안 시행 예정
- ⇒ 장기적으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역시 지상파와 같은 수준의 기금을 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

▶ 케이블TV, 매출 4년 연속 감소

(전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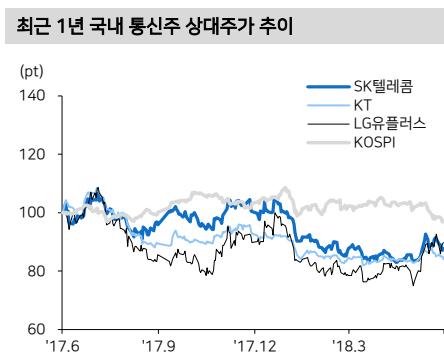
- 2017년 케이블TV 매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IPTV 매출은 +20.5% 증가
- 케이블TV는 2013년 이후 연평균 -2.7% 역성장, IPTV는 2014년 이후 연평균 +25.3% 성장
- 케이블TV 중 CJ헬로 매출만 +0.9% 성장(티브로드-3.4%, 딜라이브-3.1%, HCN -2.6%)
- ⇒ 합산규제 일몰과 맞물려 케이블 TV시장의 구조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
- ⇒ LG유플러스 IPTV 매출 성장률은 +24.8%로 SK브로드밴드(+21.3%) 및 KT(+17.4%) 상회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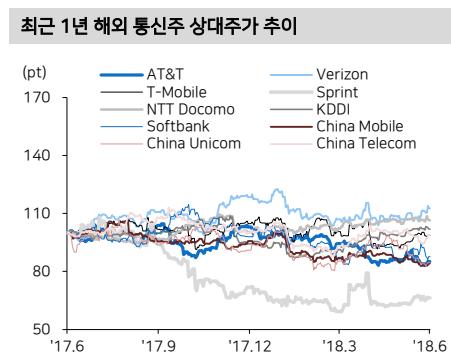
(상업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33,000	16.9	15.4	15.7	1.2	1.3	2.6	2.5	4.2	4.3	5.0	4.9	15.0	13.1
	KT	27,400	6.4	21.1	21.4	1.2	1.3	0.6	0.7	4.3	4.4	2.6	2.5	5.7	5.9
	LG유플러스	14,000	5.5	11.1	11.3	0.7	0.8	0.5	0.5	2.3	2.4	3.5	3.3	9.9	10.0
미국	AT&T	32.1	235.2	159.5	162.3	32.7	31.1	21.5	22.6	51.5	52.4	6.8	6.7	14.8	16.5
	Verizon	50.3	207.9	129.4	130.7	30.0	31.0	18.8	19.5	47.4	48.5	6.9	6.7	40.3	34.8
	T-Mobile	59.8	50.7	43.1	45.3	5.4	6.1	2.8	3.3	11.8	12.8	6.9	6.4	12.3	12.4
	Sprint	5.4	21.8	32.4	32.7	2.6	2.4	5.5	-0.2	11.1	11.4	4.9	4.7	14.1	-0.4
일본	NTT Docomo	2,823	96.4	44.2	44.0	9.1	9.2	6.7	6.4	13.9	14.0	6.8	6.6	12.6	12.0
	KDDI	3,031	69.3	45.8	47.0	9.0	9.3	5.3	5.6	14.1	14.5	5.8	5.6	15.6	15.8
	Softbank	7,973	79.2	83.8	85.1	11.6	11.0	9.9	4.8	25.0	24.7	8.6	8.7	22.0	9.3
중국	China Mobile	69.7	181.9	116.2	119.7	19.0	19.4	17.5	18.0	42.4	43.7	2.7	2.6	11.6	11.3
	China Unicom	9.8	38.2	43.3	45.6	1.6	2.5	1.3	2.0	13.5	14.4	3.2	3.0	2.8	4.4
	China Telecom	3.7	37.9	58.4	60.6	4.5	5.0	3.1	3.4	16.1	16.7	3.1	3.0	6.1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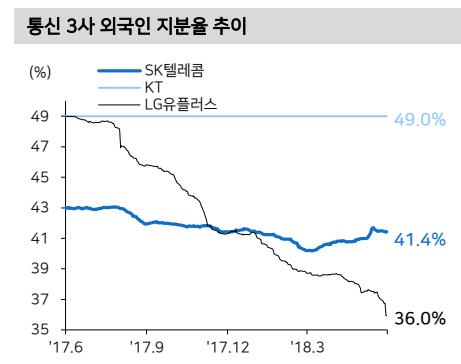
주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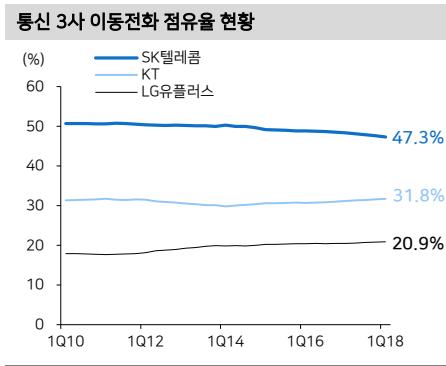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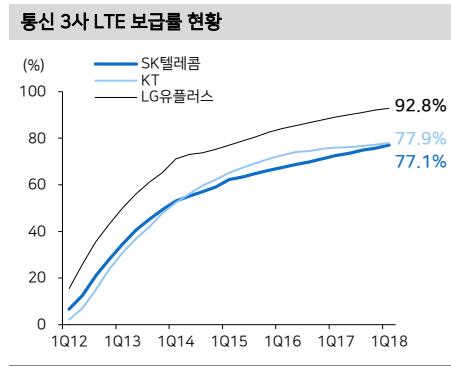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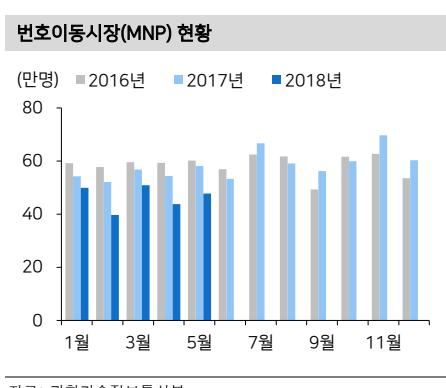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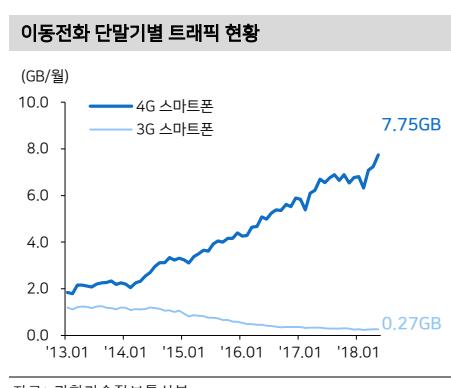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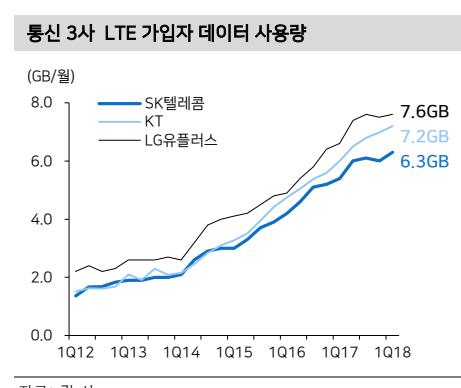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역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